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재조명*

김용철

1. 머리말

중일전쟁 이후 제국 일본의 중심 슬로건이 된 테제 ‘아시아는 하나다’는 오카쿠라 덴신(1863~1913)의 영문저서 *The Ideals of the East*(1903)의 첫 문장에서 온 것이다.¹ “The Asia is one”이라는 원문이 겪게 된 이러한 변모는 덴신의 사후 일본에서 이루어진 영문저술의 번역, 출판을 비롯한 재조명의 결과다. 아시아주의의 고립된 사례, 혹은 초기형태로 분류되기도 하는 덴신의

* 이 논문은 2013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Okakura Kakuzo, *The Ideals of the Eas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t of Japan*, John Murray, 1903.

김용철(金容澈)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신여자대학교 전임강사를 거쳐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동아시아근대 및 일본미술사다. 오카쿠라 덴신, 전쟁화, 동아시아의 국민국가와 미술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일본’의 발명과 근대』(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

사상이 사후에 재조명되어 침략전쟁 이데올로기의 기초를 제공하게 된 것은 그의 아시아론에 드러난 방대한 스케일과 아시아 역사에 대한 통찰, 그리고 시적인 표현 등의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카쿠라 덴신이 생전에 갖고 있었던 아시아 인식과 중일·태평양전쟁기의 소위 대아시아주의 이데올로기 사이에는 매우 어려운 간극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의 주요 영문 저술과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에서 논의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자명해지는 그와 같은 간극은 시간적으로 20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생겨난 것이지만, 양자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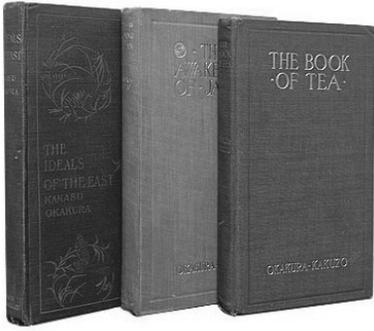


〈그림 1〉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오카쿠라 덴신은 1880년 도쿄대학을 졸업한 후 문부성 관료로서 도쿄 미술학교 설립을 주도했으며, 미술행정가이자 미술평론가로서 국민국가 건설기 일본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미술 조사사업이나 문화재 보호제도의 확립, 일본미술사의 체계화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그는 1898년 도쿄미술학교 교장에서 물러남으로써 미술계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나 일본미술원을 설립하여 미술을 통한 서양대응의 입장은 유지했다. 미술이 일본의 국가적 브랜드였던 시기인 만큼 국내외에서 전개된 그의 활동이 가진 의미는 매우 컸다. 역사화를 통해 국가 정체성의 확립에 기여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려 한 점이나 1893년 시카고만국박람회 커미셔너 (commissioner)로서 자포니즘(Japonism)이 미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사실 등은 당시 그의 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말해주는 예들이다.

그러나 덴신의 사후평가를 고려하면, 초기 도쿄미술학교 교장 재직시기까지의 업적이나 이를 사직한 후 일본미술원 설립이나 미술행정, 문화재 보호 등의 영역에서 펼친 활동은 그의 영문 저술이 발휘한 영향력에는 미치지

2 竹内好, 「アジア主義の展望」, 『アジア主義』現代日本思想大系 9, 筑摩書房, 1963, 42~44쪽.



〈그림 2〉 오카쿠라 덴신의 영문 저서들

지 못한다. 특히 1902년 인도 방문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발행한 *The Ideals of the East*나 *The Awakening of Japan*, *The Book of Tea* 등에 반영되어 있는 그의 사상은 서양에 대한 동양의 우월성이나 개항 이후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과정, 그리고 일본예술 및 일본 미의식의 우수성 등이 핵심을 이루며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저술

들의 내용이 일본의 개항과정과 메이지(明治)시대에 경험한 압도적인 서양 문명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는 동양과 서양, 일본과 여타 아시아 등, 각 층위에서 검토해야 할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더욱이 영문으로 쓰인 그의 저술이 사후에 일본에 번역·소개되어 재조명되는 과정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원래 저술 내용이 담고 있던 지식이나 통찰력에 더하여 각각의 시대적 요구가 투영됨으로써 본래의 성격이 바뀌고 덴신에 대한 평가에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더해졌다.

이 글에서는 덴신의 영문저술이 원래 담고 있던 내용과 중일·태평양전쟁기에 이루어진 재조명 과정에서 해석되고 만들어진 이념 사이의 간극을 검토하고자 한다. 소위 시대적 요구에 의해 생겨났던 그러한 간극은 1930년대 후반을 지나며 심화되었다.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양자 사이의 간극을 검토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The Ideals of the East*, *The Awakening of Japan*, *The Book of Tea*(〈그림 2〉)와 함께 *The Awakening of The East*에 특히 주목할 것이다. *The Awakening of The East*의 경우 그의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으나 중일전쟁 이후 처음 발견되어 번역·출판된 책이다. 덴신이 생전에는 출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성격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그것의 번역·출판이 불러온 파급효과는 당연히 특별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덴신에 대한 재조명의 과정은 사상계와 미술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중일·태평양전쟁기 혹은 쇼와(昭和)전기 일본에서 이루어진 오카쿠라 덴신의 재조명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³ 전후 하야시 후미오(林文夫)에 의한 오카쿠라 덴신 비판이 있었고, 덴신의 손자인 국제정치학자 오카쿠라 고시로(岡倉古志郎),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郎)와 가메이 가쓰이치로(亀井勝一郎)와 같은 일본낭만파, 아사노 아키라(浅野晃), 미야카와 도라오(宮川寅雄) 등의 시도를 거쳐 1990년대 이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초점이 일본낭만파에 맞추어져 있거나 ‘근대의 초극’ 논의에 맞추어져 있는 등 덴신의 영문저술과 일본어로 번역, 출판된 이후에 이루어진 재조명 사이의 간극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문학이나 사상 분야가 논의의 중심을 이룬 사실 또한 그 한계를 온존시키고 구체적인 규명을 지체시킨 측면을 갖고 있지만, 중일전쟁 발발 이후 덴신이 여러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이용당했다는 단편적인 ‘덴신 구하기’ 역시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이하 본문에서는 앞서 말한 영문 저술들이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의 덴신 재조명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오카쿠라 덴신 영문저술의 일본어 번역

1919년 잡지 『현대의 미술』(現代之美術) 2권 2호에 오카쿠라 덴신이 쓴 영문 저서 *The Ideals of the East*의 일부가 『동방의 이상』(東方の理想)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고, 1922년에는 개별 저서의 전체 요지가 처음 일본어로 번역·

3 林文夫, 「岡倉天心への批判」, 『芸術研究』 1, 1947. 1, 6~9쪽; 岡倉古志郎, 『民族』, 光文社, 1958; 保田與重郎, 『絶対平和論』, 祖国社, 1950; 亀井勝一郎, 『三人の先覚者: 民族の独立』, 要書房, 1950; 浅野晃, 『剣と美: 私の岡倉天心』, 日本教文社, 1972, 32~43쪽; 宮川寅雄, 『岡倉天心』, 東京大学出版会, 1972; 橋川文三, 『日本浪漫派批判序説』 講談社文芸文庫Y1050, 講談社, 1997; 坪井隆彦, 『岡倉天心の思想探訪』, 勁草書房, 1998; Rustom Barhucha et al., 「もう一つのアジア」, 『いま 天心を語る』, 東京芸術大学出版会, 2007, 125~202쪽; 李京禧, 「浅野晃の岡倉天心論」, 『比較文化研究』 92, 東大比較文学会, 2008, 82~103쪽; 中島岳志, 『アジア主義』, 潮出版社, 2014.

소개되었다. 덴신 사망 10주기를 맞이하던 그해 일본미술원에서 펴낸 『덴신선생구문저서초략』(天心先生歐文著書抄略)은 후쿠하라 린타로(福原麟太郎)가 번역한 덴신의 저서 『동양의 이상』(*The Ideals of the East*)과 『차의 책』(*The Book of Tea*), 그리고 『일본의 각성』(*The Awakening of Japan*)을 축약하여 실었다. 사이토 류조(齋藤隆三)가 쓴 서문에 따르면 원래 덴신의 저서를 번역해서 펴내는 일 자체에 대한 갖가지 구상과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면, 덴신의 영어문장을 번역하게 되면 원래 그것이 가진 참맛을 전할 수 없고 본래 취지에 어긋날 것이라는 의구심 등이 작용하여 번역이 지체되었다.⁴ 그 때문에 영문 저술 그대로 펴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실제 『차의 책』 외에는 좀처럼 실물을 입수하기도 쉽지 않았기에, 초역을 출판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여곡절을 거쳐 비매품으로 펴낸 『덴신선생구문저서초략』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東洋の理想 The Ideals of the East
- 日本の覚醒 The Awakening of Japan
- 茶説 Book of Tea
- 日本的見地から見た現代美術 Modern art from Japanese View
- 東洋絵画における自然 Nature in Oriental Painting
- 東洋芸術における宗教 Religion in Oriental Art
- 東洋芸術における美術鑑識及価値 The Value and Connoisseurship in Oriental Art

덴신의 영문저술의 내용을 일본에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 이 출판은 1898년 그가 창립한 일본미술원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덴신의 제자들이 10주기를 맞아 그를 기념하고자 계획한 일이었다. 덴신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따랐던 제자들의 추모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1930

4 齋藤隆三他 編, 『天心先生歐文著書抄略』, 日本美術院, 1922.

년대 후반 중일전쟁 발발 이후의 번역 및 소개에 비하면 아시아주의를 비롯한 여타 이데올로기와의 연관은 미약하다.

덴신의 영문저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일본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차의 책』이다. 1929년 무라오카 히로시(村岡博)가 번역하여 출판한 이 책은 덴신이 ‘심미주의의 종교’로 규정한 일본 다도에 반영된 미의식을 예찬한 도서다. 원래 서양인 화가 존 라파쥐(John La Farge)에게 헌정한 책으로 아시아문명 전체를 다루거나 개국 이후 일본의 역사를 담은 여타 저서와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도 평가되지만, 이와나미(岩波)출판사에서 문고판인 수진본(袖珍本)이 출판됨으로써 일반대중이 덴신의 사상에 다가가는 통로가 되었다. 내용상으로도 일본의 대중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저술로서 『동양의 이상』이나 『일본의 각성』에 비하면 이념적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약했다.⁵

〈표 1〉에 나와 있듯이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덴신의 영문 저술의 일본어 번역은 1935년 덴신의 유족들이 번역하고 감수한 『오카쿠라 덴신 전집』(岡倉天心全集) 발행 이후인 1930년대 후반을 지나며 활발해졌다. 일본어 번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아사노 아키라(浅野晃)는 친구 집에서 처음 『동양의 이상』(東洋の理想)을 빌려 읽은 후 1938년 헌책방에서 덴신의 원서를 직접 구입하여 번역·출판했다고 한다.⁶ 한때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에 관여한 아사노가 출옥, 전향한 이후에 일본낭만파와 어울리며 내셔널리즘에 경도된 시기에 번역·출판한 만큼 그의 사상적 입지가 번역의도에 반영된 점 또한 당연한 것이었다. 번역자 서문에서 아사노는 덴신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동양의 정신이 미술을 중심으로 한 일본예술의 역사 속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으며, 그것이 아시아가 하나임을 확증한다고 주장했다.⁷ 덴신을 ‘메이지시대의 예언자’로 규정한 그는 스스로 덴신숭배자임을 밝히며 『동양의 이상』이 일본의 애독서가 되기를 희망했다.

5 岡倉天心, 村岡博 訳, 『茶の本』, 岩波書店, 1929.

6 坪内隆彦, 『岡倉天心の思想探訪』, 119쪽.

7 浅野晃, 「譯序」, 岡倉天心, 『東洋の理想』, 創元社, 1938, 1~7쪽.

〈표 1〉 영문 저서의 일본어 번역 목록(1919~1945)

연도	영문 저서	일본어 제목	비고
1919	<i>The Ideals of the East</i>	東方の理想	『現代之美術』 2卷 2号 제3장 중간까지
1922	<i>The Ideals of the East</i>	東洋の理想	福原麟太郎 번역 『天心先生欧文著書抄略』 (日本美術院)
	<i>The Awakening of Japan</i>	日本の覚醒	福原麟太郎 번역 『天心先生欧文著書抄略』 (日本美術院)
	<i>The Book of Tea</i>	茶説	福原麟太郎 번역 『天心先生欧文著書抄略』 (日本美術院)
1929	<i>The Book of Tea</i>	茶の本	村岡博(岩波文庫)
1935	<i>The Ideals of the East</i>	東洋の理想	岡倉由三郎 監督 高松・紀 공역 『岡倉天心全集』(聖文閣)
	<i>The Awakening of Japan</i>	日本の覚醒	福田久道・荒井甲子三郎 『岡倉天心全集』(聖文閣)
1936	<i>The Book of Tea</i>	茶の本	渡辺正知 번역 『岡倉天心全集』(聖文閣)
1938	<i>The Ideals of the East</i>	東洋の理想	浅野晃 번역(創元社)
	<i>The Awakening of the East</i>	理想の再建	岡倉一雄・岡倉古志郎 編 桐原徳重 번역(河出書房)
1939	<i>The Ideals of the East</i>	東洋の理想	高松・紀 공역 『岡倉天心全集』(六芸社)
	<i>The Awakening of the East</i>	東洋の覚醒	浅野晃 번역 『岡倉天心全集』(六芸社)
	<i>The Awakening of Japan</i>	日本の覚醒	福田久道 번역 『岡倉天心全集』(六芸社)
	<i>The Book of Tea</i>	茶の本	渡辺正知 번역 『岡倉天心全集』(六芸社)
1940	<i>The Awakening of Japan</i>	日本の目覚め	村岡博 번역(岩波文庫)
	<i>The Awakening of the East</i>	영문 출판	浅野晃 주석·해설
1943	<i>The Ideals of the East</i>	東邦の理想	村岡博 번역(岩波文庫)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동양의 이상』은 원래 텐신이 미국 여성 하이드와 영국 여성 맥클라우드 등을 위해 일본에서 행한 일본미술사 강의내용을 토대로 한 저서다.⁸ 맥클라우드의 주선으로 1902년

8 木下長広, 「解題」, 『岡倉天心全集 1』, 平凡社, 1980, 475~476쪽.

인도를 방문한 텐신은 힌두교 승려 스와미 비베카난다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우주만물에 적용되는 진리는 하나라는 불이일원론(不二元論), 즉 애드바이티즘(Advaitism)을 수용함으로써 『동양의 이상』의 내용을 완성했다. 그 결과 아시아의 일체성과 아시아의 이상을 구현한 일본미술의 가치가 부각되었다. 특히 애드바이티즘의 요체를 아시아에 적용한 첫 문장은 서양제국주의의 침탈이 본격화된 19세기 이후 아시아의 상황과 중첩됨으로써 아시아의 단결 혹은 연대를 향한 여운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사노 아키라가 번역한 텐신의 영문저술에는 『동양의 이상』과 함께 오늘날 『동양의 각성』(東洋の覚醒)으로 불리는 영문원고도 포함되었다. 1938년 텐신의 손자 오카쿠라 고시로가 처음 발견했을 당시 제목이 없었던 관계로 그해에는 『이상의 재건』(理想の再建)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이듬해부터 『동양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이 책은 텐신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던 저술이다.⁹ 『동양의 이상』의 제1단계로 평가되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동양의 이상』(1903)과 『일본의 각성』(1904)의 중간에 위치한 저술로 평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어로 번역한 아사노 아키라는 소위 영문 3부작 가운데 정점으로 평가하며 아시아 여러 민족의 필독서라고 주장했다.¹⁰

첫 문장이 “아시아의 형제자매 여러분!”인 점으로 보아 『동양의 각성』에서 텐신은 아시아인을 독자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에서는 19세기 이후 아시아의 상황을 진단하며 실제의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등 거침 없는 그의 성향을 드러냈다. 특히 19세기 아시아의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유럽의 영광은 아시아의 굴욕”으로 규정한 텐신은 “범아시아적 동맹”이나 “무장”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형제자매여 칼을 들라”와 같은 선동적인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저술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경우임을 보여주었다. 그 배경에는 당시 인도의 피폐상이 있었다. 1902년 인도 체류 당시 시인

9 원래 제목은 *We are one*일 가능성이 높으나 1939년 浅野晃의 번역, 출판 이후 *The Awakening of the East*, 『東洋の覚醒』로 뿌리를 내렸다. 木下長広, 「解題」, 480~484쪽.

10 浅野晃, 『岡倉天心論攷』(浅野晃, 『岡倉天心論攷改訂版』, 永田書房, 1989, 179~189쪽에서 재인용).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āth Tagore)의 조카인 스렌드라나트 타고르와 함께 인도의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고대 인도의 유적과 동시대 인도의 피폐상이 보여주는 극명한 대비를 통해 영국식민지 상황이 초래한 인도의 현실을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서양제국주의의 아시아 침탈에 대한 비분강개를 표출한 것이다. 다만 『동양의 각성』이 텐신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 책의 출판에 대한 그의 입장이 여타 저술에서와는 달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이 쓰여진 것은 인도 체류 당시인 1902년 영일동맹이 체결된 직후의 일로,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결국 러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책을 출판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에게 영국이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¹¹ 즉 영일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텐신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텐신의 자기검열이 작동한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일·태평양전쟁기에 『동양의 각성』이 일본어로 번역·출판된 사실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내용과 출판된 시점이다. 『동양의 이상』과 함께 ‘인도여행의 기념품’으로도 불리는 이 저술은 먼저 내용면에서 이전에 출판된 텐신의 다른 저술과 확연히 달랐다.¹² 이 책이 중일전쟁이 진행중이던 1938년과 1939년이라는 시점에 번역·출판되었다는 사실은,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나 침략적 아시아주의와 밀접하게 결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오자키 호쓰미(尾崎秀実)나 미키 기요시(三木清)와 같은 사상가에 의해 동아협동체론이나 동아연맹론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¹³

나아가 텐신의 사상이 가진 내용과 범위를 고려했을 때 『동양의 각성』은 이전 시기에 이미 내용이 알려져 있던 『동양의 이상』이나 『일본의 각성』

11 浅野晃, 『岡倉天心論攷』(浅野晃, 『岡倉天心論攷改訂版』, 92쪽에서 재인용); 佐藤信衛, 『岡倉天心』, 新潮社, 1944, 92~93쪽.

12 木下長広, 『岡倉天心』, ミネルバ書房, 2007, 249쪽; 宮川寅雄, 『岡倉天心』, 194쪽.

13 尾崎秀実, 「『東亜共同体』の理念とその成立の客観的基礎」(竹内好 編, 『アジア主義』 現代日本思想大系 9, 筑摩書房, 1963, 322~335쪽에서 재인용); 三木清, 「新日本思想原理」 및 「新日本の思想原理統篇」(内田弘 編, 『三木清東亜共同体論集』, こぶし書房, 2007, 175~232쪽에서 재인용).

과 연관됨으로써 한 단계 고양된 사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안게 된 점 또한 자명한 추이였다. 사실 『동양의 각성』이 번역·출판됨으로써 덴신의 저술 및 사상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는 새로운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새로운 영역이란 덴신의 사상이 한층 충실한 것으로 이해되고 시각에 따라서는 자체완결된 구조를 갖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음을 뜻한다. 이미 출판된 『동양의 이상』이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탈아론」(脫亞論) 이후 의식적으로는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달성한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었고, 첫 문장인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테제에 드러나 있듯이 양자 사이의 일체성을 간결한 어휘로 정리해주었다.¹⁴

그에 비하면 한국에 대한 과거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등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각성』은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원인이 ‘안으로 부터의 각성’임을 밝혔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각성이 러일전쟁의 승리에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줌으로써 일각에서 일고 있던 ‘황화론’(黃禍論)을 불식시키는 데도 주효했던 것이다. 이들 저서에 더하여 중일전쟁 발발 이후 『동양의 각성』이 번역·출판됨으로써 일본의 과거에 중점을 둔 통시적 인식과 메이지시대 이후 중일전쟁기 일본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는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 사상계에서 이루어진 덴신의 재조명이 초래한 구체적인 결과로서 주목해야 할 측면이다. 다시 말하면 침략적 아시아주의 혹은 전투적 아시아주의를 합리화할 실마리가 덴신의 영문 저술 『동양의 각성』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3.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 사상계의 오카쿠라 덴신 재조명

오카쿠라 덴신의 영문저서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그의 사상이 윤곽을 드러낼 무렵인 1933년에는 쇼와연구회, 대아세아협회(大亞細亞協會) 등의 단체가

14 岡倉天心, 「東洋の理想」(『岡倉天心全集』1, 平凡社, 1980, 7~132쪽에서 재인용).

결성되어 정치, 관료, 언론, 학계 등 주요 분야 인사들이 아시아연대를 둘러싸고 일본사회 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¹⁵ 다나카 마사아키(田中正明)의 회고에 드러나 있듯이 그가 참여한 대아세아협회는 쑨원(孫文)의 아시아주의 연설과 ‘아시아는 하나’라는 덴신의 사상을 늘 거론하며 아시아를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그 일체성을 강조했다.¹⁶ 단체 구성원들이 정치, 외교, 사상 각 분야의 유력자였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덴신의 영향력은 1930년대 일본사회에 점차 확산되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0년대 후반이 되자 좀 더 적극적으로 덴신의 사상을 재조명하고 그를 아시아주의자 혹은,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의 선구적 지도자로 규정한 예들이 등장했다. 야스다 요주로, 아사노 아키라, 아키야마 겐조(秋山謙藏), 기요미 리쿠로(清見陸郎) 등이 그들이다.

일본낭만파의 구성원이던 야스다 요주로는 1937년 「메이지의 정신」(明治の精神)에서 메이지정신이 세계를 발견한 가운데 덴신의 호류지(法隆寺) 발견이야말로 가장 엄숙한 사실이었음을 지적했다.¹⁷ 야스다 요주로는 문화적 열등국의 자각이 그려내는 문화에 대한 결의에는 초조함이 있고 메이지 초기의 정신은 그 자각으로 광란(癡亂)을 했지만, 덴신은 그 광란 가운데 빛의 길을 보고 있었던 인물로서 크고 아름답고 늠름했다고 극찬했다. 그는 이듬해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のこと)에서도 덴신의 3부작을 일본의 실체를 가르치는 최적의 교과서로 평가하고 덴신이 메이지 최대의 로맨티스트이자 시인이며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와 함께 일본인이 자랑할 세계인이라고 주장했다.¹⁸ 이후 야스다 요주로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42년에는 50명의 역사상 인물들의 어록을 다룬 저서 『일본어록』(日本語録)에서 덴신의 「아시아는 하나다」(アジアは一つだ)를 다루었다.¹⁹ 그는 덴신의 ‘아시

15 Miles, Fletcher, 竹内洋·井上義和 訳, 『知識人とファシズム』, 柏書房, 2011, 157~184쪽.

16 坪井隆彦, 『岡倉天心の思想探訪』, 113쪽.

17 保田與重郎, 「明治の精神-二人の世界人」, 『保田與重郎全集』5, 講談社, 1988, 195~196쪽.

18 保田與重郎, 「岡倉天心のこと」, 『新日本』1卷 2号, 1938. 2, 23~28쪽.

19 保田與重郎, 「Asia is One(アジアは一つだ)」, 『日本語録』, 新潮社, 1942(『保田與重郎全集』17卷, 講談社, 1987, 175~178쪽에서 재인용).

아는 하나다'라는 테제를 서양세력에 맞서기 위해 아시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정세론에서 이해해야 할 문구가 아니라, 당시의 현실을 낳은 정신의 신화라고 주장했다. 정세론과는 거리를 두면서 덴신의 테제가 가진 가치를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중일전쟁 발발 이후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테제를 앞세운 침략적 아시아주의가 고양되는 과정에 덴신 예찬론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쇼와연구회에 참가하고 있던 미키 기요시는 그 주장의 기만성을 지적, 비판했다. 하나의 신화를 나타낸 그 테제가 과거 일본이 여타 아시아 여러 나라와 같은 후진국으로서 백인제국주의로부터 동양민족을 독립시키려 할 때에는 의의가 있었지만, 똑같은 제국주의로 보이는 경우 중국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²⁰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동아협동체를 제기한 그의 입장은,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덴신의 주장을 토대로 한 침략적 아시아주의에 대한 명확한 반대였다. 그는 덴신을 비롯한 복고적 아시아주의를 의식한 듯 덴신의 걸작인 『차의 책』에서 강조한 도교, 선불교와 같은 전통사상은 '무'(無)의 사상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정치적 지도원리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동양적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동아협동체론을 제기했다.²¹

미키 기요시의 주장이 제기된 이듬해인 1938년부터 덴신의 영문저서를 번역·출판한 아사노 아키라는 평전의 성격을 띤 『오카쿠라 덴신 논고』(岡倉天心論攷)에서 미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²² 그는 소위 덴신의 영문 3부작에 주로 드러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단계 진전된 논리를 전개했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규정하는 동양과 서양의 관계는 미래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일본이 절대 주체로서 양자 위에 존재함을 강조했다. 여타 아시아지역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과 침략전쟁의 합

20 三木清, 『日本の現実』, 『中央公論』(内田弘 編, 『三木清東亞共同体論集』, こぶし書房, 2007, 24~28쪽에서 재인용).

21 三木清가昭和研究会에서 발표한「新日本思想原理」및「新日本の思想原理統篇」(内田弘 編, 『三木清東亞共同体論集』, 175~232쪽에서 재인용).

22 浅野晃, 『岡倉天心論攷』, 思潮社, 1939.

리화, 정당화로 직결되는 이와 같은 인식과 주장은 “창조적 세계사의 입장”을 “국사의 입장”과 동일시하며 자국 일본의 입장, 즉 주체의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텐신의 주장을 이어받아 그 테제에 드러난 아시아의 일체성이 고대 아시아의 평화 이데아, 그리고 일본의 이데아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것임을 주장했다. 그것은 바로 텐신의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테제가 중일전쟁 이후 ‘팔굉일우’(八紘一宇) 등의 슬로건과 함께 시의에 맞게 재생산된 것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 이르러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테제는 대아시아주의의 슬로건이 되어 있었다. 더욱이 그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국을 지원하던 영국이나 러시아가 한발 물러선 상황을 가리켜 텐신의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테제가 미키 기요시의 주장과 같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²³

아사노 아키라가 통시적인 시각에서 아시아문명을 조망하고 일본의 위상을 논한 것은 텐신의 견해를 그대로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문명의 박물관임을 강조하고, 외침을 받은 적이 없는 일본의 역사를 천황제 국가의 국체론(國體論)에 토대를 두고 파악한 점 등은 텐신의 견해를 계승한 그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도 인도도 나라를 잃었으나 오직 일본이 독립을 유지했고, 나아가 빛나는 ‘국체의 정화’에 살았다는 그의 인식 역시 텐신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그는 아시아의 전통이 일본에만 살아 있음을 들어 일본에게 동양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동양에게 일본이 가지는 의미를 환기시키며 아시아 유일의 창조적 상속자로서의 일본의 위상을 강조했다.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 그리고 “그 앞에서 국민 개개인의 몰락”을 역설한 대목에서는 일본적 전체주의로까지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아시아의 일체성을 바탕으로 두고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결합시킨 텐신의 사상은 침략적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의 토대로 변모해 있었던 것이다.

아사노는 텐신의 주요저술이 가진 의미를 각각 다르게 파악하고, 소위

23 浅野晃, 『岡倉天心論攷』(浅野晃, 『岡倉天心論攷改訂版』, 永田書房, 1989, 262~263쪽에서 재인용).

시국색에 맞는 해석을 시도했다. 그는 텐신이 『동양의 이상』에서 동양의 이상이 일본미술의 역사 속에 드러나 있으며 수단에 치중한 서양과는 달리 보편과 궁극에 가치를 둔 동양의 우월성을 강조한 사실을 부각시켰다. 특히 『동양의 이상』 마지막 부분에서 아시아의 이상과 방법이 장래 세계에 확립 될 것으로 내다본 텐신의 견해를 살아 있는 예언으로 규정하고 중일전쟁 이후 당시 상황에서 점점 살아나는 예언이라 주장했다.²⁴ 또한 「아시아의 밤」으로 시작되는 텐신의 저서 『일본의 각성』은 ‘안으로부터의 목소리’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의 각성’이 ‘서양의 지도’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저술로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본에 대한 수식어였던 ‘호전(好戰)’이라는 이름을 정당하게 서양에 돌려주었다고 평가했다.²⁵ 아사노는 이어서 아시아는 하나이며, 이미 칼을 잡은 이상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장을 통해 중일전쟁 당시의 상황을 투영시켰다.

『동양의 이상』이나 『일본의 각성』에 비하면 『차의 책』은 문명비평서로서 서양문명에 비해 동양문명이 가진 우월성을 논한 저술로 규정했다.²⁶ 특히 다도는 그 신봉자들을 ‘취미상의 귀족’으로 만들며 그것이야말로 서양의 민주주의와 다른 동양 민주주의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텐신이 서술한 부분을 가리켜 서양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아사노가 텐신의 원래 저술에 드러나 있는 서양 대응의 측면에서 한발 나아가 오로지 서양에 대한 비판에 주목한 사실이다. 이는 텐신이 주장한 바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텐신의 주장이 중일전쟁 이후 다음세대에 계승되어 서양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의 입장에서 해석되어간 사정을 말해준과 동시에, 『차의 책』이 아시아의 일체성과 동양문명의 우월성을 역설한 『동양의 이상』과 함께 ‘근대의 초극’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준 저서였음을 알게 해준다.²⁷

24 浅野晃, 『岡倉天心論攷』(浅野晃, 『岡倉天心論攷改訂版』, 157~160쪽에서 재인용).

25 浅野晃, 『岡倉天心論攷』(浅野晃, 『岡倉天心論攷改訂版』, 201~205쪽에서 재인용).

26 浅野晃, 『岡倉天心論攷』(浅野晃, 『岡倉天心論攷改訂版』, 160~167쪽에서 재인용).

27 텐신은 『차의 책』에서 일본이 평화로운 문명에 빠져 있을 때는 서양이 일본을 야만국으로 간주하더니,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문명국으로 인식되게 되었다며 문명국이 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

아시아와 일체성을 가진 일본의 과거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대세 속에서 메이지유신이 이후 러일전쟁까지의 당대가 『동양의 이상』과 『일본의 각성』으로 설명된 점은 『동양의 각성』이 번역·출판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다시 말하면, 앞에 든 두 저술의 번역·출판으로 일본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아시아와 일체인 동시에 그 맹주인 일본의 위상이 해명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저술의 내용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효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남아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즉 이후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동양의 각성』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해주었다. 비슷한 시기 오사키 호쓰미(尾崎秀実)나 미키 기요시가 주장한 동아협동체론,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의 동아연맹체론과도 긴장관계를 가지며 이미 시작된 대륙침략을 합리화할 논리가 『동양의 각성』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²⁸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불과 한 세대 전에 제기된 것이긴 하지만, 그의 주장만큼 일본의 정체성과 관련된 과거와 당시까지의 과정을 해명해주고 향후의 입장을 제시해주는 자체완결적인 구조를 가진 주장의 예는 달리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한 세대 전이라는 과거역사 속에 존재했던 주장이라는 사실로 인해 역사가 가져다준 권위를 더한 완충제적 선례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동양의 각성』에 드러난 무력저항의 입장이야말로 당대의 지침으로 가장 잘 들어맞는 내용이었고, 바로 그 시점에 이르러 텐신은 완벽한 선각자, 예언자가 되었던 것이다.

중일전쟁 발발 후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한 싸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인식하던 아사노 아키라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역사정신의 회복을 역설했

에 의존해야 한다면 차라리 오래 야만국으로 남자고 주장함으로써 후일의 침략적인 제국주의와는 구별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岡倉天心, 『茶の本』(『岡倉天心全集 1』, 平凡社, 1980, 267~268쪽에서 재인용) 및 浅野晃, 『岡倉天心論攷』(浅野晃, 『岡倉天心論攷改訂版』, 161~162쪽에서 재인용). 종전 후 '참모본부 소속 공창(公娼)'으로 불린 야스다 요주로, 아사노 아키라에 대한 비판은 杉浦明平, 『暗い夜の記憶に』, 風媒社, 1997, 56~72쪽.

28 尾崎秀実, 「『東亞協同体』の理念とその成立の客観的基礎」, 『中央公論』, 1931. 1(竹内好 編, 『アジア主義』, 現代日本思想大系 9, 332~335쪽 재인용); 石原莞爾, 『東亞連盟運動』, 石原莞爾全集刊行会, 1976.

다.²⁹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질적 저하를 역사정신의 상실에서 원인을 찾은 그는 역사정신이란 조국정신(肇國精神), 즉 건국정신임을 상기시키고 덴신의 역사정신이 진무천황(神武天皇)의 ‘팔굉일우’(八紘一宇)와 일맥상통한 것임을 강조했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아사노나 일본 낭만파의 논객들은 덴신의 사상을 빌려 ‘근대의 초극’을 달성하려는 시도에까지 이르렀다. 같은 시기 일본낭만파에 참여하고 있던 야스다 요주로나 가메이 가쓰이치로(亀井勝一郎) 등의 주장에서도 덴신을 천재로 평가하거나 그로부터 영향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야스다 요주로는 잡지 『신일본』에 실린 『오카쿠라 덴신』에서 그를 천재로 평가하고 그의 영문저서들이 일본의 실체를 가장 잘 알려준 교과서로서 당시 젊은이의 필독서임을 주장했다.³⁰ 1942년 문학잡지 『문학계』 주최로 개최된 〈근대의 초극〉 좌담회에 일본낭만파의 대표로 참석한 가메이 가쓰이치로는 「현대정신에 관한 메모」(現代精神に関する覚書)에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서 초래된 언어 위기와 정신의 퇴패(頹敗) 등이 서양문물의 전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덴신을 메이지정신을 가장 위대하게 드러낸 인물로 평가한 그는 “노예의 평화보다는 왕자(王者)의 전쟁”을 주장하며 마무리한 앞의 글에서 덴신의 『동양의 이상』과 『동양의 각성』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다.³¹

같은 시기 덴신에 대한 재조명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경향은 그의 행적을 일본 설명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일본에 필요한 반성을 제기한 인물로 인식한 예다. 사토 노부에(佐藤信衛)는 그의 저서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에서 덴신의 성장과정과 주요 행적 및 저술의 개요 등을 서술함으로써

29 浅野晃, 『日本精神史論攷』, 文明社, 1941, 178~180쪽 및 『明治文学史考』, 万里閣, 1944, 11~12쪽.

30 保田與重郎, 『岡倉天心のこと』, 『新日本』 1卷 2号, 1938. 2, 23~28쪽.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테제의 성격을 비롯하여 덴신에 대한 야스다 요주로와 아사노 아키라 사이의 인식차이에 관한 견해는 神谷忠孝, 『浅野晃論』, 『国文学 解釈と鑑賞』 48卷 11号, 1983. 8, 107~112쪽; 桶谷秀昭, 『浅野晃論』, 『国文学 解釈と鑑賞』 67卷 5号, 2002. 5, 173~180쪽.

31 亀井勝一郎, 『我が精神の遍歴』, 日本図書センター, 1999, 78~90쪽; 『現代精神に関する覚書』, 『近代の超克』, 創元社, 1943, 3~18쪽.

형식상으로는 오키쿠라 덴신의 평전을 의도했던 것처럼 보인다.³² 하지만, 「발문」(跋文)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반성이다. 특히 총력전체제가 절정에 달했던 그 시기에 침략전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동양의 각성』으로 번역된 저술의 요지가 일본의 반성임을 통감했다고 밝혔다. 덴신의 저술을 요약한 본문에서 “아시아의 부활”, “각성” 등을 강조한 그는 당시야말로 덴신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로 그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반성을 독려한 것이다. 이는 태평양전쟁 당시 덴신의 저술에 담긴 메시지를 수용하는 입장에 드러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역사학자 아키야마 겐조(秋山謙藏)는 『역사』(歴史) 18권 1호(1943. 1)에 실린 「역사의 추진과 오키쿠라 덴신」(歴史の推進と岡倉天心)이라는 글에서 역사의 진실을 알려준 선각자로 덴신을 평가했다.³³ 이미 『일지교섭사연구』(日支交渉史研究, 1939), 『일본의 역사』(日本の歴史, 1941) 등의 저서를 출판하며 소장 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겐조는 「역사의 추진과 오키쿠라 덴신」의 서두에서 『동양의 각성』에 서술된 “유럽의 영광은 아시아의 굴욕”, “각성”, “단결”, “지도” 등의 표현을 강조하며 덴신의 일본사 인식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쇄국정책을 편 에도시대를 ‘번데기(蠅)시대’로 규정한 덴신의 역사인식을 메이지시대 이후 정통 역사학으로 균립한 실증주의 사학에 대비되는 “예리하고 정확한 연구”로 평가했다. 또한,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침략전쟁을 “역사의 추진”으로 규정한 그는 그 추진에 따라 덴신이 일본에 크게 살아났음을 역설했다.

아사노 아키라나 사토 노부에에 비하면 보다 긴 세월 동안 덴신 전도사를 자임하고 그 역할을 수행한 이는 기요미 리쿠로(清見陸郎)다. 1934년부터 오키쿠라 덴신 평전을 발간한 그는 1942년과 1945년, 전부 합쳐서 세 차례에 걸쳐 덴신평전을 펴냈다. 중일·태평양전쟁기 그의 덴신 인식을 가장 잘

32 佐藤信衛, 「跋文」, 『岡倉天心』, 179~180쪽.

33 秋山謙藏, 「歴史の推進と岡倉天心」, 『歴史』 18卷 1号, 1943. 1, 9~22쪽.

보여주는 1945년판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서문에서는 덴신을 “대아시아주의의 선각”, “혜안의 역사가”, “문명비평가” 등으로 묘사하면서, 한 시기 전까지 일본에서 ‘일대의 몽상가-로맨티스트’로서만 평가되었음을 비판했다.³⁴ 특히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테제에 대해, 그것은 명백한 진실이며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 그 점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했다. 그가 예로 든 버마나 필리핀의 독립, 자유인도가정부(自由印度假政府)의 수립 등이 당시 일본의 군부나 정치가들이 주장한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의 시범적인 적용사례였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그는 침략적 아시아주의의 시각을 내면화하여 덴신의 사상을 해석하고 있었다.

이들 사상계의 덴신 재조명은 내각 정보국에서 펴낸 대동아회의 연설집 『아시아는 하나』(アジアは一つなり), 일본문학보국회가 펴낸 『정본국민좌우명』(定本国民座右銘)에 실린 글의 제목 「아시아는 하나」에서 보듯이 다양한 저술과 퀘를 같이 하며 파급, 확산되었다.³⁵ 이는 덴신이 과거 역사나 전통을 통해 주장한 아시아의 일체성을 동시대 상황에 투영시키고 아시아의 통일을 위한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관변 각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사례로서 소위 ‘아시아주의의 비사상성(非思想性)’의 일면을 말해준다.³⁶

4.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 미술계의 오카쿠라 덴신 재조명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사상계와는 달리 미술계에서 이루어진 덴신의 재조명 및 현창사업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일본미술원이나 도쿄미술학교와 같이 그가 생전에 관여했던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덴신 생전에 신앙적인 존경과 절대적 신뢰를 보낸 제자들이 일부 있었지만, 『동양의 이상』을 비롯한 그의 영문 저술이 번역·출판되고 그의 주장에 대한 이해가

34 清見陸郎, 『天心岡倉覚三』, 筑摩書房, 1945, 1~6쪽.

35 情報局, 『アジアは一つなり』, 印刷局, 1943.

36 竹内好, 「アジア主義の展望」, 『アジア主義』, 13~19쪽.

확산된 중일전쟁 발발 이후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미술계의 덴신 재조명은 이전의 존경이나 신뢰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를 띠었다. 덴신이 설립한 일본미술원을 중심으로 전통을 중시하던 일본 미술계의 국수적 경향과 결부되어 ‘미술계 내부의 지도자’로 인식되던 이전의 상황을 뛰어넘어 “메이지 성세(聖世)가 낳은 최대의 선각”, 대동아공영권을 예시한 “선견지명과 경륜의 비범함”을 갖춘 인물로 찬양되었다.³⁷ 미술계 외부에서 고양된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 혹은 아시아주의에 고무되어 덴신의 위상을 그러한 사상적 경향의 선각자로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0년부터 일본미술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덴신현창사업은 재단법인 오카쿠라 덴신 위적현창회(岡倉天心偉蹟顯彰會)의 발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1942년 1월 덴신의 제자인 화가 요코야마 다이칸(横山大観), 야스다 유키히코(安田靫彦), 고바야시 고케이(小林古徑), 마에다 세이손(前田青邨), 그리고 미술에 조예가 깊었던 정치가 호소카와 모리타쓰(細川護立)와 저술가 사이토 류조(齋藤隆三)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현창회는 덴신이 마지막 숨을 거둔 아카쿠라 산장의 부지 매입 및 기념관 건립, 정원 정비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미술원, 도쿄아사히신문사(東京朝日新聞社)와 공동주최로 오카쿠라 덴신 30주기 기념강연회를 개최한 데 이어 1906년 이후 일본미술원이 있었던 지금의 이바라키 현(茨城県) 이즈라(五浦)에 기념비(〈그림 3〉)를 세웠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42년에는 도쿄미술학교에서 덴신제(天心祭)가 열려 그에 대한 또 다른 재조명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도쿄미술학교 보국단(報國團) 흥아부(興亞部)에서 주최한 덴신제는 그의 행적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반영하며 “덴신의 위업을 회고하고 현전 시국하 자각과 결의를 그의 영전에서 맹세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⁸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37 「財團法人岡倉天心偉蹟顯彰會設立趣意書」(齋藤隆三, 『日本美術院史』, 中央公論美術出版, 1974, 380~383쪽 재인용).

38 東京芸術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 『東京芸術大学百年史 東京美術学校篇』第3卷, ぎょうせい, 1989, 897~901쪽.

도쿄미술학교 덴신 동상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고, 기념강연회, 유품전시회 등이 개최되었다. 도쿄미술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보국단 흥아부가 주최한 이 행사는 당시 잡지에 “영매(英邁)한 동아의 선각(先覺)” 등으로 묘사되며 그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반영했다.³⁹ 그러나 행사에 참석하여 덴신에 관한 추억을 말한 제자 롯카쿠 시스이(六角紫水)가 지적했듯이 덴신이 40년 전에 갈파한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고 덴신의 위대함을 논하



〈그림 3〉 이즈라(五浦)에 있는 오카쿠라 덴신 기념비

지만 젊은 학생들의 몰이해와 냉담함 또한 엄연한 현실이었다. 덴신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고 시대의 선봉에 서서 분발매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 덴신의 제자세대에 의해 표출될 정도로 미술계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미흡했음을 말해준다.

1942년 도쿄미술학교에서 열린 덴신제에서 덴신의 유품을 중심으로 열린 전시회에는 그의 유품뿐만 아니라, 도쿄미술학교의 설립과정과 초기 교장을 지낼 당시 연관이 있었던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도쿄미술학교 개교를 앞두고 세상을 떠난 가노 호가이(狩野芳崖)의 〈비모관음〉(悲母觀音), 초기 도쿄미술학교 교수를 지냈고 덴신과 함께 사직하여 일본미술원을 설립한 하시모토 가호(橋本雅邦)의 〈백운홍수〉(白雲紅樹), 도쿄미술학교 졸업생으로 덴신의 제자인 히시다 슌소(菱田春草)의 〈물거울〉(水鏡) 등이 전시되었다. 이듬해에는 덴신제가 열리지 않았으나 이미 패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1944년 9월에도 도쿄미술학교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덴신제가 열려 그

39 하지만 당시 도쿄미술학교의 교수 대부분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도쿄미술학교 전체가 협조적이지는 않았던 사정을 엿보게 한다. 東京芸術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 『東京芸術大学百年史 東京美術学校篇』 第3卷, 898~899쪽.



〈그림 4〉 히라쿠시 덴추(平櫛田中) 〈학창〉 (鶴鑿)

의 사상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이어갔다.

덴신위적현창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그 시기에 미술가들 또한 작품을 통해 직·간접으로 참여했다. 1942년 5월에는 일본미술원 동인의 작품전시회를 겸하여 덴신위적현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작품전시회가 개최되었다.⁴⁰ 이듬해에는 덴신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조각가 히라쿠시 덴추(平櫛田中)가 덴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학창〉(鶴鑿, 1943, 〈그림 4〉)을 일본미술원 재흥(再興) 29회 전람회에 출품하여 출품작 가운데 단연 주목을 끌었다. 물론 이는 덴신을 직접 형상화한 첫 번째 예는 아니다. 1922년 덴신의 제자 시

모무라 간잔(下村觀山)이 덴신의 초상화를 완성하고 그 밑그림을 랭던 워너(Langdon Warner)에게 선물한 적이 있고, 1931년 도쿄미술학교 교장이던 마사키 나오히코(正木直彦)가 교장직에서 불명예 사직한 덴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히라쿠시 덴추에게 의뢰해 제작한 덴신좌상이 도쿄미술학교 구내에 전시되어 있었다.⁴¹

시기적으로 덴신현창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제작된 덴신상의 완성작은 현재 세 점 정도가 남아 있다. 일본의 전통 목조를 충실하게 학습하고 덴신 사후에 일본미술원 동인이 된 히라쿠시 덴추는 높이 218cm에 달하는 목조작품인 〈학창〉과 〈이즈라(五浦)의 낚시꾼〉(1943년)을 남겼다. 〈학창〉에서는 덴신의 당당한 모습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본문화와 일본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던 시절 덴신이 보여준 장년의 풍모를

40 齋藤隆三, 『日本美術院史』, 中央公論美術出版, 1974, 373~387쪽.

41 齋藤隆三, 『岡倉天心』, 現代日本思想大系 9, 筑摩書房, 1963, 251~252쪽. 간잔이 그린 초상화 원본은 간토대지진 때 소실되었고, 현재는 밑그림만 도쿄예술대학 미술관에 남아 있다. 또한 1931년 히라쿠시 덴추가 전신좌상을 제작할 당시 흉상도 제작되었다.

표현했다. 그에 비하면 <이즈라(五浦)의 낚시꾼>(1943년) 역시 만년의 텐신이 이즈라에서 낚시를 하며 소일하던 시기의 모습을 리얼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이전의 당당한 모습은 간데없고 우의를 입고 낚싯대를 든 텐신의 초췌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만, 텐신의 실제 모습을 전해주는 리얼리티가 표현되어 있다. 이는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미술계의 텐신 재조명이 그의 영웅적인 모습에만 집중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또 하나 상징적인 조형물인 신카이 다케조(新海竹藏)의 <텐신상>은 현장사업 과정에서 이즈라에 세워진 ‘아시아는 하나다’ 기념비에 새긴 부조로 사진으로 많이 알려진 그의 옆모습을 바위에 새긴 것이다.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사상계에서 이루어진 텐신 재조명이 영문 저술의 번역·출판 등을 통해 이전까지 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분야에 까지 확산되어갔던 데 비해 미술계에서는 그 파급력에서 한계를 가졌다. 텐신 생전에 그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히라쿠시 덴추나 그의 사후 일본미술원과 관계를 맺게 된 신카이 다케조와 같은 미술가들을 제외한다면 새롭게 텐신의 영향을 받은 예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 사실로 보면 텐신 재조명이 미술계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지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메이지시대 이후 역사화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당시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화가 세대들이 점차 세상을 떠나거나 세대가 교체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중일·태평양전쟁기에도 여러 화가들이 역사화를 그렸다.⁴² 따라서 중일·태평양전쟁기 역사화에도 텐신의 직, 간접적인 영향력은 분명 확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카쿠라 텐신에 대한 일본사회의 관심은 시기

42 김용철,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 역사화 속의 국가주의」, 『한림일본학』 20, 2012. 5, 105~130쪽.

별로 변천을 겪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그의 제자들이 벌인 추모사업의 성격이 강했던 영문 저술 번역·소개는 중일전쟁 발발 후인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당대의 침략적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결합 양상을 보였다. 당시 일본에서 이루어진 재조명을 통해 침략적인 대아시아주의와 연결되었고,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테제 또한 그 시기 동안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다. 그의 사후 일본에 번역·소개된 영문 저술의 내용 가운데 소위 영문 3부작에 포함되는 『동양의 이상』과 『동양의 각성』이 그 가능성을 농후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후자는 ‘유럽의 영광은 아시아의 굴욕’이라는 인식 위에 무력 사용을 선동하는 등 곳곳에 위험소지를 안고 있는 저술이었다.

덴신의 영문 저술이 일본어로 번역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테제에 압축되어 있듯이 내용상 일본과 아시아의 일체성을 논한 『동양의 이상』과 안으로부터의 각성과 천황제 부활이 근대국가의 건설에 성공한 이유임을 밝힌 『일본의 각성』이 일본어로 번역됨으로써 일본의 과거와 러일전쟁 승리를 눈앞에 둔 시점까지의 당대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원래 시기적으로는 그 두 책의 사이에 씌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동양의 각성』이 가장 마지막에 번역·출판됨으로써 『동양의 이상』에 드러난 아시아의 일체성에서 한발 나아간 전투적인 입장까지를 옹호해주는 견해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더욱이 그 번역·출판 시기가 중일전쟁 발발 이후 시점인 점은 소위 동아신질서의 건설을 위한 침략전쟁의 합리화와 직결되었다. 덴신의 영문저술 가운데 『동양의 각성』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

이와 같은 중일·태평양전쟁기 덴신 재조명의 움직임은 대표하는 저술가가 아사노 아키라였고 야스다 요주로나 가메이 가쓰이치로, 사토 노부에, 아키야마 겐조, 기요미 리쿠로 등도 유사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관심을 보인 덴신의 주요 영문 저술의 내용에는 천황제 국가 일본을 중심에 둔 아시아주의나 서양에 대한 무력항쟁을 선동하는 내용 등 침략적 대아시아주의와 연결될 소지 또한 분명히 내재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1930년대 후반 일본의 상황에서 침략적인 대아시아주의로 연결시키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한 것은 아사노 아키라와 같은 인물들이었다. 그들이 러일전쟁 직전 시기에 씌어진 덴신의 영문 저술들의 주요 주장과 테제들을 동시대의 상황에 오버랩시킴으로써 덴신을 시대의 선각자, 예언자로 떠받든 것이다. 덴신의 생전에 출판되지 않았던 『동양의 각성』은 그 과정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했고, 그러한 왜곡과 악용이 아시아주의의 비사상화로 발전하여 덴신을 침략적 아시아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만든 것이다.

미술계에서 이루어진 재조명은 사상계에 비하면 그 활발한 정도가 덜했다. 덴신이 설립한 일본미술원과 교장을 지낸 도쿄미술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사업이 중심을 이루었고, 히라쿠시 덴추와 같은 조각가의 덴신형상화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재단법인 덴신위적현장사업회가 펼친 현장사업은 덴신이 마지막 숨을 거둔 아카쿠라 산장의 정비와 이즈라 기념비 설치 등이었다. 도쿄미술학교 학생들이 개최한 덴신제도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군부와 관변 인사들이 중심이 된 아시아주의의 비사상화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일·태평양전쟁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을 통해서만 그려낼 수 있는 덴신의 이미지로서 그를 침략전쟁과 결부된 터부의 영역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